

# 대전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입지 요인과 공간적 연계

## Location factors and spatial networks of enterprises established in and around Daejeon.

이진형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leejh99@snu.ac.kr)

대전 지역은 대덕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에 배후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연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최근 혁신 시스템의 창출을 통한 지역 혁신 역량의 증대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 지역의 지역 혁신 역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의 향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창출이,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대전 지역에 남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입지 요인들에 대하여 볼 때 대전권에서 기업이 유출되는 것이 수도권과 대전권의 입지 조건의 어떠한 차이에 기인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대전권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과의 이러한 입지조건의 차이를 극복하는 원리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과정과 이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차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입지 조건의 차이와 기업의 특성의 차이를 고찰 할 수 있었다. 연구 개발 연계의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유리한 가운데에서도 대전의 연구 기관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기업의 대전권에 대한 연계가 나타났다. 연구 개발 연계의 측면에서 대전권 기업들은 대전권의 연구 기관 연계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대전권에서는 불리한 시장 및 신기술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도권의 기업들과 연계를 가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산 및 판매 연계의 측면에서는 대전 지역의 입지 조건이 수도권의 입지 조건에 비하여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것 외에는 대부분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생산 및 판매 연계의 측면에 대하여서는 2차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불리한 입지 조건에 대한 대전권 입지 기업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2차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대상 기업들이 수도권에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하는 원리를 보았다. 2차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는 1차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의 분석 대상 기업 가운데, 수도권과 주로 구매 및 판매 연계를 가지고 있는, 대전 지역에 생산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한정하여 이루어 졌다. 이들 기업 가운데에서 소비재 공급 기업은 대전의 입지 조건을 크게 불리하게 여기지 않았다. 반면에 생산재 공급 기업은 대전의 입지 조건을 보다 불리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 생산재 공급 기업은 근접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관점으로 하여 볼 때, 거래 기업들과

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거래의 촉발 단계에 있어서는 인맥이라는 사회적인 근접성을 주로 활용하고, 거래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인식적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를 포함하는 판매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근접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의 활용을 통하여 지리적 근접성의 부재를 보완함으로써 대전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근접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과의 공간적인 원거리성을 극복하게 된다면, 이들 기업의 활동에는 지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더하여져 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